

광주여대, 남학생 입학 허용 '공학 전환' 반대 목소리

외국인·성인학습자 200명 모집
"설명없이 학칙 개정" 학생 반발
"성범죄 노출·여대 정체성 흐려져"
대학 "남녀공학 전환 계획 없다"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시작된 남녀공학 전환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유일의 4년제 여자대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도 특정 수업 남학생 수강을 놓고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여대. 재학생들이 본관 앞 하늘정원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학부와 성인 학습자 전형의 성별무관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통해 모인 '광주여대 존재를 지지하는 연대'가 주최한 이번 시위에는 40명가량의 재학생과 광주지역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발언문을 다 함께 외치고 노래를 떼창하는 등 시위에 나섰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시위 진행자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발언권을 얻고 앞으로 나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자유 발언을 이어 나갔다.

앞서 광주여대는 지난 5월 외국인 전담과정인 글로벌융합학부(정원 100명)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융합학부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동덕여대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8일 광주여대도 특정 수업 남학생 수강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며 본관 계단에 학과 점퍼와 전공 서적을 쌓아두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정원 100명)를 남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학생들은 해당 학칙 개정을 남녀공학 전환의 사전 절차로 받아들이며 본관 계단에 학과 점퍼와 전공 서적을 쌓아두고 교내 잔디밭에 건조 화환을 줄지어 놓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 측에서 논치를 주며 동의서를 받았으며 개정 사

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위 주최 측에서는 "학교 측은 남학생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했지만 성인 학습자가 수업을 듣는 공간을 가는 길목에 재학생 기숙사가 모여 있다. 또 도서관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숙사생과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만날 수밖에

없다"며 "학칙 개정으로 인해 여자대학교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학생들은 지난 2018년 광주여대 도서관 열람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붙잡힌 사건을 사례로 들며 "성별무관 모집이 진행되면 성인 학습자와 유학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

적했다. 반면 대학 측은 "공학 전환에 대해 검토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며 부인했다.

광주여대는 시위 다음 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은 남녀공학 대학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며 "학칙상 일반학과는 여학생만 입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학칙 개정을 통해 전담 과정으로 운영하는 외국인·성인학습자에 한해 남학생 입학 허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와 총학생회 의견수렴, 전체 재학생 대상 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 24회 등 수차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와 합의를 끝낸 후 일부 학생들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여대의 공학 전환 반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대가 공학으로 변경되면 성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되려 종합 대학교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반발하면서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여대 총학생회 '여운'은 앞서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여대는 현재 남녀공학 전환 의사가 절대적으로 없음을 확인했다"며 "학칙 개정으로 외국인·성인 전담과정만 남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반 설문조사 등 관련 절차도 진행했다"고 알린 바 있다.

글·사진·정성이기자 sangajeong@jnilbo.com

'나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분양 사기, 수분양자 패소

법원, "건설사 기망하지 않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설사와 분양 대행사에게 주거용으로 속아 분양받았다며 제소한 민사소송에서 수분양자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9일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7명이 토담건설과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토담건설이 '산업시설'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고, 각 호실에 대해 분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주거용 사용여부와 옵션계약, 수익률 등을 속여 분양했고,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로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를 믿고 계약했으

나, 용도상 임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계약 취소와 건설사·분양 대행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 배상 책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토담건설 측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속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 입주승인신청서, 분양 안내 책자 등에는 주거용으로 분양한다는 기재가 없고 견본주택에는 침대

나 주방 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지만 주거 가능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사업자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비주거용 부동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담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분양자들을 모은 분양 대행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건설사 대표는 2020년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용도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

다. 피해자는 99명으로 적게는 1채에서 많게는 8채의 건물에 대해 분양 중도금까지 냈으며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1채당 8000만~9000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일반 주거용이 아닌 나주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피해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민천기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